간편한 소식 타임즈

「간편한 소식 타임즈」는 7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 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최다 확진' 1,784명의 32%가 비수도권…거리 두기 강화 가능성 커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일 줄 모르고 있다. 21일 0시 기준 1,8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물론 비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누출 화학물질 10분간 손으로 막아 독성 모른 채 안전조치도 못 받았다

지난 1월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경기 파주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 사고의 배경에 원청업체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누출된 독성 물질을 하청업체 직원들이 손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 10분 넘게 지속됐음에도 원청업체 측은 안전조치나 사고 후 응급 조치 모두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60세 이상 '고용연장' 꺼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고용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이달 말, 핵심 인구 대책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고용 연장은 사실상 정년 연장이지만, 임금 인하·고용 방식 변경 등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5.1% 인상'… 나홀로 사장님 급증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보다 5.1%오른 금액이다. 반면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1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000명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는 무인점포 시스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집값·전세 더는 감당 안 돼요 "올 10만 명 탈서울"

고삐 풀린 집값·전셋값에 서울 주민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탈서울' 행렬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의 집값은 급등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전출자)는 전입 인구보다 4만 4,118명이 많았다.

#방호복 입고 일한 지 2시간 머리 어질, 눈앞이 흐릿했다

선별진료소 검사보조 일일체험

중복에 걸맞게 35~36℃까지 오른 폭염 속에서 레벨-디(D) 방호복 안쪽이 땀에 흠뻑 젖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천막 아래 곳곳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는 부지런히 돌았지만, 방호복 안 더위를 식혀주진 못했다. 얼음팩도 1시간이 채 안 돼 녹아버렸다. 전날 역대 최다인 1,784명이 신규 확진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상황이다. 온도계 속 수은주도, 코로나19 확진자도 기록 경신이 한창인 만큼 선별진료소의 위태로운 일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